

브라질 간 MK 여수엑스포 유치 분주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상원의장·정부 주요 인사 등 잇단 면담

여수 온 해수부장관 “엑스포 유치 확신”

브라질 방문중인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12일(현지시간) 브라질 의회 및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벌였다.

정 회장의 이번 브라질 방문은 현대제철의 철광석 장기공급 계약체결을 위해서지만,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중남미 국가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고문인 정 회장은 앞서 지난달 슬로바키아·체코·터키를 잇따라 방문, 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갖는 등 박람회 유치를 위한 민간외교 활동을 펼쳤었다.

정 회장은 이날 브라질리아에서 최종화 주 브라질 대사와 함께 헤난 깔레이로스 상원의장, 사우엘 빠네이로 기마리에스 외교부 부장관 등 브라질 의회 및 정부의 핵심 인사들과 잇단 면담을 가졌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2012년 세계박람회가 여수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브라질 의회가 지원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한 민간경제 부문의 교류는 한·브라질 양국과 중남미 전체의 경제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

라고 말했다고 현대·기아차그룹이 전했다.

이에 대해 깔레이로스 상원의장은 “현대·기아차그룹이 적극 지원하고 있는 여수 세계박람회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며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선진국 진입에 매진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에게 좋은 본보기 될 것”이라고 환답했다.

정 회장은 또 현대차가 브라질 현지에 연산 10만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여수를 방문한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여수시민은 물론 온 국민이 바라는 세계박람회 성공 유치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지방 방문지로 여수를 택한 강 장관은 이날 여수시 학동 여수시립테니스장에서 열린 2012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해수관련 관계자 대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여수신항 일대 박람회 후보지와 국도17호선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현장 및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개발현장을 들려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상경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지난 12일 브라질 상원의원 공관에서 헤난 깔레이로스 상원의장을 만나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위한 브라질 정부의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원쪽부터 브라질 상원의원 호메로 쥐카, 정몽구 회장, 헤난 깔레이로스 상원의장, 최종화 주 브라질 대사. (기아차광고제공)

여수시 ‘기아차 사주기’ 나선다

여수시가 ‘기아차 사주기 운동’을 전개한다. 여수시가 기아차 사주기에 나선 것은 현대·기아차 그룹 정몽구 회장의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해수관련 관계자 대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슬로바키아와 체코 등 동구권 방문을 통해 보여준 정 회장의 ‘박람회 사랑’은 동행했던 한국 정부 물론, 방문 국가 고위 관료들도 놀랄 정도였다.

당시 정 회장과 동행했던 여수시 관계자는 “공식행사는 물론 사석에서 철새없이 박람회 유치 당위성을 설득하는가 하면 행사장 곳곳에 엑스포 유치 플래카드를 내걸고 하고 만찬장에서는 박람회 관련 홍보영상물을 방영토록 했다”고 말했다. 여수시와 광양회의 소는 가수 캠페인 실시 등 기아차 사주기 운동을 본격 전개할 예정이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빈곤층 영유아 교육 국가가 맡는다

이르면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는 만 5세까지 국가로부터 언어·인지발달 등의 교육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갈수록 심해지는 소득계층 간 교육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우수한 미래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 자녀의 생애초기 기본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출생 직후부터 만 2세까지 영아의 습관 형성 및 인지·정서가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해 영아가 부모가 알아야 할 올바른 자녀양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프로그램을 유아교육·보육비지원 사업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보급하고 소재자 협체의 펠플릿, 녹음 테이프, 동영상 자료를 개별 가정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다문화가정의 어머니가 한국어 능력이 떨어질 경우 자녀의 언어발달이 영유아기부터 지체돼 지속적인 학습결손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결혼이주 여성에게 한글 및 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부모와 자녀의 동반 언어습득을 지원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기초생활자 등 자녀 만 5세까지 지원

이제도가 시행될 경우 연간 약 50만명의 영유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만 3~5세 아동의 언어·인지발달 수준이 취학기 학습 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번 주에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대학과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주하기로 했다.

언어 프로그램은 한글 습득과 말하기 및 표현하기, 의사소통 능

력을 높이고 인지 프로그램은 보거나 들어서 물건의 차이점을 인식하는 능력과 여러 개념의 상호 관계를 아는 능력, 기억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들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제공해 교사들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특별 지도 하도록 하되 동화책과 놀잇감을 활용한 개별 지도나 소그룹 활동도 병행토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한국지방신문협회 편집국장회의

의제: 2007 대선전략, 공동취재·여론조사방안

일시: 2007년 5월 11일 ~ 12일

장소: 서울시 강남구 펜션호텔 주제: 한글로 민족언어를 살피다 주제: 경기경인일보

가정도 ‘女風’

LG CNS 임직원 설문

“기장 힘있는 사람, 엄마”

“우리 가족 중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은 아빠, 파워가 가장 센 사람은 엄마”

LG CNS는 최근 사보 ‘더 모아진’이 임직원 933명을 대상으로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한 결과, 사회 초

세를 반영하듯 가정에서도 ‘여풍(女風)’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우리 가족 중 파워가 가장 센 사람은?’이란 질문에 응답자 중 49%가 ‘아내’라고 대답한 반면 ‘남편’은 28%에 그쳤다.

이어 ‘우리 가족 중 TV 채널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나?’라는 질문에도 ‘아내’가 36%로 1위를 차지했으며, 남편(27%), 부모님 등 기타 가족(24%), 자녀(13%) 순이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사 편집국장들은 지난 11일 수원시 화이트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대통령 선거 공동취재·여론조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원쪽부터 이영동(경남신문), 최동성(전북일보), 장택수(매일신문), 김종남(경인일보), 신향락(광주일보), 박진오(광원일보), 신수용(대전일보), 강종규(부산일보) 편집국장과 현창국(제주일보) 편집부국장.

(경인일보제공)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사 편집국장들은 지난 11일 수원시 화이트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대통령 선거 공동취재·여론조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원쪽부터 이영동(경남신문), 최동성(전북일보), 장택수(매일신문), 김종남(경인일보), 신향락(광주일보), 박진오(광원일보), 신수용(대전일보), 강종규(부산일보) 편집국장과 현창국(제주일보) 편집부국장.

(경인일보제공)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사 편집국장들은 지난 11일 수원시 화이트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대통령 선거 공동취재·여론조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원쪽부터 이영동(경남신문), 최동성(전북일보), 장택수(매일신문), 김종남(경인일보), 신향락(광주일보), 박진오(광원일보), 신수용(대전일보), 강종규(부산일보) 편집국장과 현창국(제주일보) 편집부국장.

(경인일보제공)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사 편집국장들은 지난 11일 수원시 화이트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대통령 선거 공동취재·여론조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원쪽부터 이영동(경남신문), 최동성(전북일보), 장택수(매일신문), 김종남(경인일보), 신향락(광주일보), 박진오(광원일보), 신수용(대전일보), 강종규(부산일보) 편집국장과 현창국(제주일보) 편집부국장.

(경인일보제공)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사 편집국장들은 지난 11일 수원시 화이트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대통령 선거 공동취재·여론조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원쪽부터 이영동(경남신문), 최동성(전북일보), 장택수(매일신문), 김종남(경인일보), 신향락(광주일보), 박진오(광원일보), 신수용(대전일보), 강종규(부산일보) 편집국장과 현창국(제주일보) 편집부국장.

(경인일보제공)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사 편집국장들은 지난 11일 수원시 화이트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대통령 선거 공동취재·여론조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원쪽부터 이영동(경남신문), 최동성(전북일보), 장택수(매일신문), 김종남(경인일보), 신향락(광주일보), 박진오(광원일보), 신수용(대전일보), 강종규(부산일보) 편집국장과 현창국(제주일보) 편집부국장.

(경인일보제공)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사 편집국장들은 지난 11일 수원시 화이트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대통령 선거 공동취재·여론조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원쪽부터 이영동(경남신문), 최동성(전북일보), 장택수(매일신문), 김종남(경인일보), 신향락(광주일보), 박진오(광원일보), 신수용(대전일보), 강종규(부산일보) 편집국장과 현창국(제주일보) 편집부국장.

(경인일보제공)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사 편집국장들은 지난 11일 수원시 화이트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대통령 선거 공동취재·여론조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원쪽부터 이영동(경남신문), 최동성(전북일보), 장택수(매일신문), 김종남(경인일보), 신향락(광주일보), 박진오(광원일보), 신수용(대전일보), 강종규(부산일보) 편집국장과 현창국(제주일보) 편집부국장.

(경인일보제공)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사 편집국장들은 지난 11일 수원시 화이트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대통령 선거 공동취재·여론조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원쪽부터 이영동(경남신문), 최동성(전북일보), 장택수(매일신문), 김종남(경인일보), 신향락(광주일보), 박진오(광원일보), 신수용(대전일보), 강종규(부산일보) 편집국장과 현창국(제주일보) 편집부국장.

(경인일보제공)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사 편집국장들은 지난 11일 수원시 화이트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대통령 선거 공동취재·여론조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원쪽부터 이영동(경남신문), 최동성(전북일보), 장택수(매일신문), 김종남(경인일보), 신향락(광주일보), 박진오(광원일보), 신수용(대전일보), 강종규(부산일보) 편집국장과 현창국(제주일보) 편집부국장.

(경인일보제공)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사 편집국장들은 지난 11일 수원시 화이트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대통령 선거 공동취재·여론조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원쪽부터 이영동(경남신문), 최동성(전북일보), 장택수(매일신문), 김종남(경인일보), 신향락(광주일보), 박진오(광원일보), 신수용(대전일보), 강종규(부산일보) 편집국장과 현창국(제주일보) 편집부국장.

(경인일보제공)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사 편집국장들은 지난 11일 수원시 화이트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대통령 선거 공동취재·여론조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원쪽부터 이영동(경남신문), 최동성(전북일보), 장택수(매일신문), 김종남(경인일보), 신향락(광주일보), 박진오(광원일보), 신수용(대전일보), 강종규(부산일보) 편집국장과 현창국(제주일보) 편집부국장.

(경인일보제공)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사 편집국장들은 지난 11일 수원시 화이트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대통령 선거 공동취재·여론조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원쪽부터 이영동(경남신문), 최동성(전북일보), 장택수(매일신문), 김종남(경인일보), 신향락(광주일보), 박진오(광원일보), 신수용(대전일보), 강종규(부산일보) 편집국장과 현창국(제주일보) 편집부국장.

(경인일보제공)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사 편집국장들은 지난 11일 수원시 화이트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대통령 선거 공동취재·여론조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원쪽부터 이영동(경남신문), 최동성(전북일보), 장택수(매일신문), 김종남(경인일보), 신향락(광주일보), 박진오(광원일보), 신수용(대전일보), 강종규(부산일보) 편집국장과 현창국(제주일보) 편집부국장.

(경인일보제공)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사 편집국장들은 지난 11일 수원시 화이트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대통령 선거 공동취재·여론조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원쪽부터 이영동(경남신문), 최동성(전북일보), 장택수(매일신문), 김종남(경인일보), 신향락(광주일보), 박진오(광원일보), 신수용(대전일보), 강종규(부산일보) 편집국장과 현창국(제주일보) 편집부국장.

(경인일보제공)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사 편집국장들은 지난 11일 수원시 화이트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대통령 선거 공동취재·여론조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원쪽부터 이영동(경남신문), 최동성(전북일보), 장택수(매일신문), 김종남(경인일보), 신향락(광주일보), 박진오(광원일보), 신수용(대전일보), 강종규(부산일보) 편집국장과 현창국(제주일보) 편집부국장.